



도서관에서 배달 온 동시

동시 따라 쓰기



부안동초등학교 도서관



싫어



나는 싫어가 참 좋다
학교 가기 싫으면 싫어
세수하기 싫어도 싫어
공부하기 싫어도 싫어
싫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콩, 너는 죽었다

콩 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 어, 저 콩 좀 봐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엄마들 _성명진

두 엄마가 만났어요.

"우리 앤 말 배우는 게 빨라."

"우리 애 눈 맑은 것 좀 봐."

곁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미 개가 가만히
강아지를 내놓아요.



문학동네 동시집 46
『걱정 없다 상우』
그림 ©성민



귀 _이안

뭐라고?

?

귀가 잘 안 들릴 때 사람들은

귀 가까이 손을 갖다 대고

귀 하나를 더 만들지

이렇게

??



문학동네 동시집 36
『글자동물원』
그림 ©최미란



나이테 _안도현

나무 속에 숨어 있는
나이테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간 자국

그랬지, 그날
네 손을 처음 잡았던 날도

내 몸 안에서 밖으로
징 소리가 퍼져 나갔지



문학동네 동시집 48
기러기는 차갑다
그림 ©유준재



놀이터에서 _주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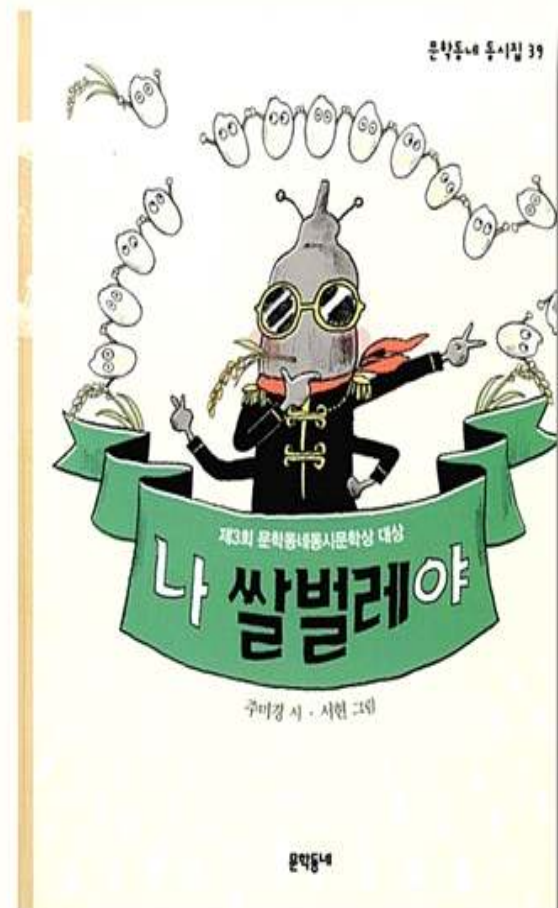
책가방 하나
벗어 놓았을 뿐인데

하늘로
저절로
솟구친다



문학동네 동시집 39

『나 쌀벌레야』
그림 ©서현



개울물 _권정생

뽕들 햇빛에
세수하고
어느 데인지 놀러 간다

또로롤롱
또로롤롱

땡굴렁
땡굴렁

허늬적
허늬적
쫓올딱
쫓올딱

어느 데인지
어느 데인지
참 좋은 델
가나 봐.



문학동네 동시집 22
『나만 알래』
그림 ©김동수

문학동네 동시집 22

권정생 시 · 김동수 그림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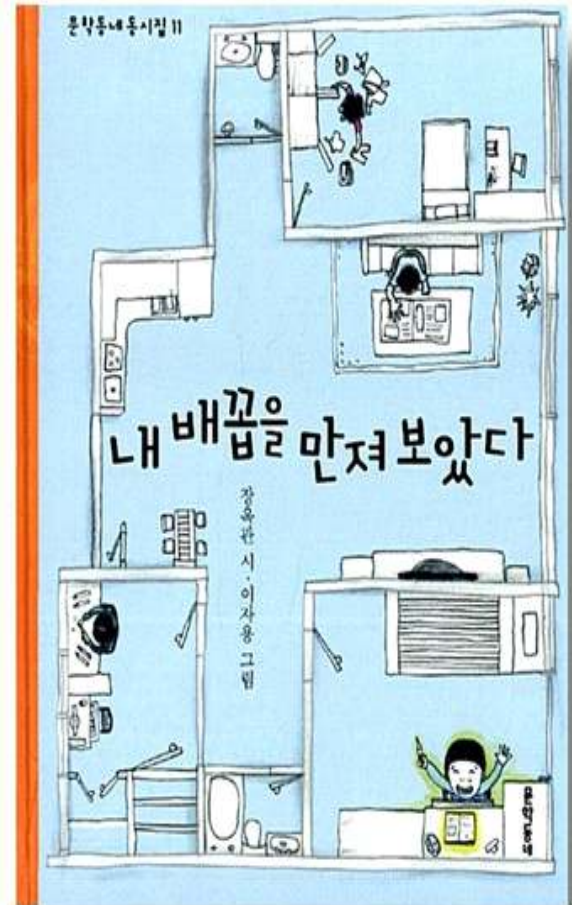
냄비가 달린다 _장욱관

냄비가 달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락
가스 불 위에서

엄마가 달려간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청소기 던져 놓고



문학동네 동시집 11
『내 배꼽을 만져 보았다』
그림 이자용



허수아비 정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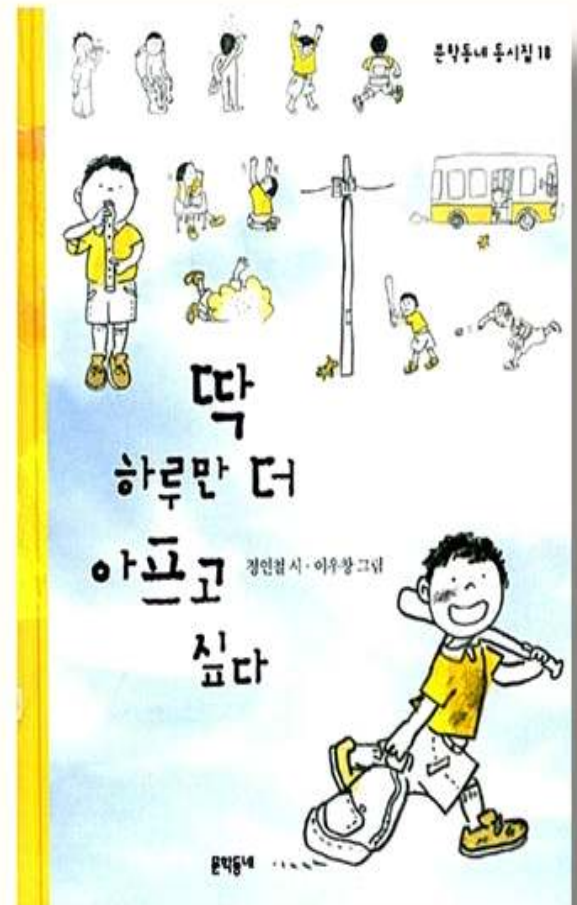
피* 뿔던 할머니
논두렁에 앉아
허리 통통 두드리다가
물끄러미 허수아비를 바라본다

곁에 서 있는 허수아비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옷에
보릿대 모자까지 쓰고
철통같이 논 지키다가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본다



* 벼과의 한해살이풀.

문학동네 동시집 18
『딱 하루만 더 아프고 싶다』
그림 ©이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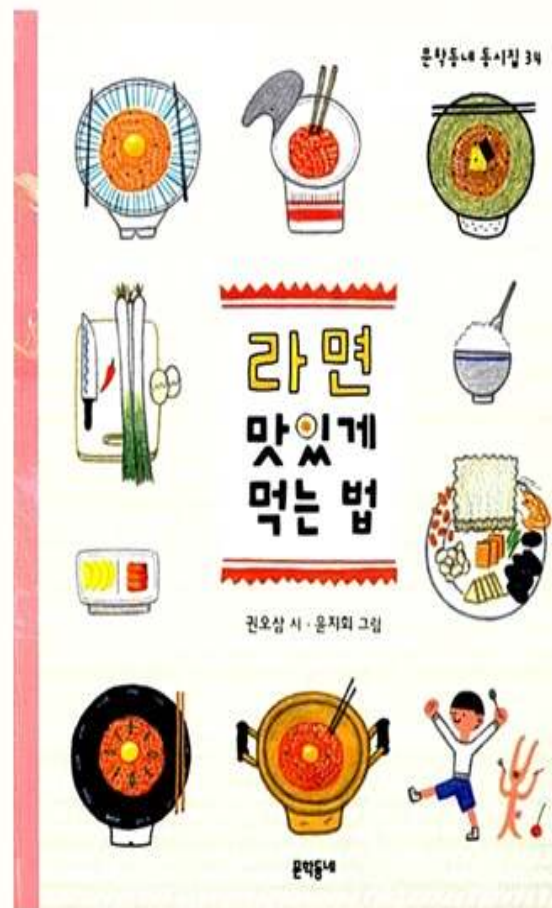
공부벌레 _권오삼

곤충도감에는 없어도
국어사전에는 있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레



문학동네 문시집 34
『라면 맛있게 먹는 법』
그림 오윤지희



병아리 _작해룡

육십 촉 친구만 한
노랑 병아리가
강아지 집으로 들어갔다

어둑하던
강아지 집이
환해졌다



문학동네 동시집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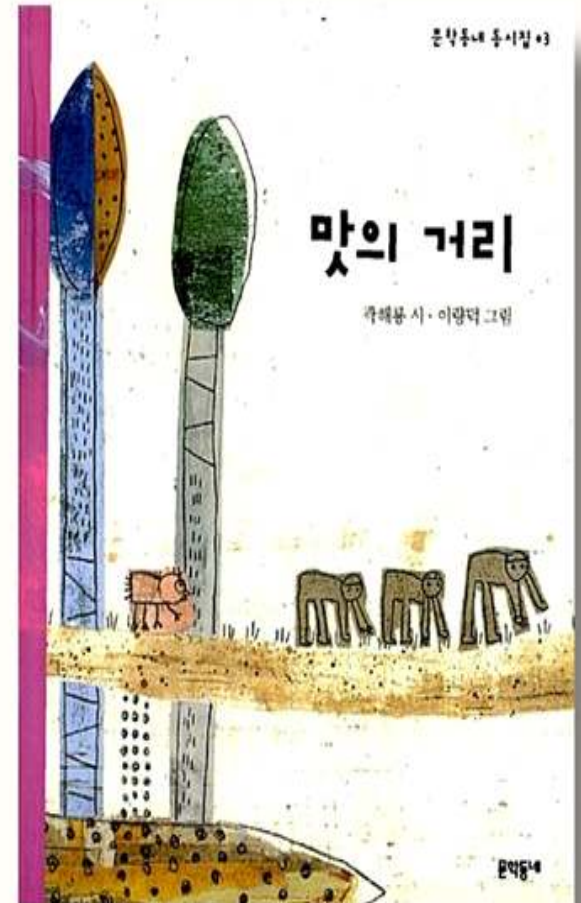
『맛의 거리』

그림 C이랑덕

문학동네 동시집 03

맛의 거리

작해룡 시 · 이랑덕 그림



문학동네



고백 _안진영

착하다

착하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꼭 막힐 때도 있는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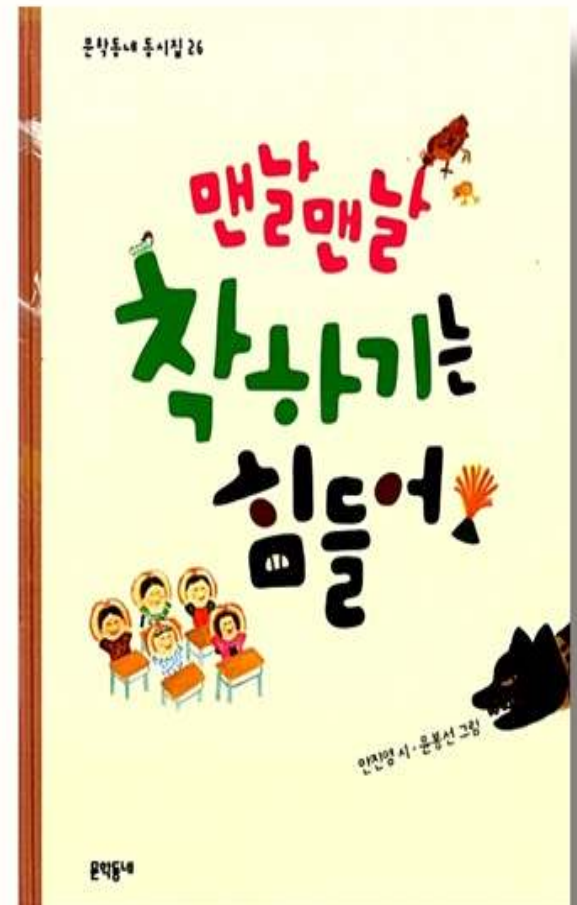
좋은 마음이 빠져나올 틈

없을 때도 많다고요

맨날맨날 착하기는 힘들어요



문학동네 동시집 26
『맨날맨날 착하기는 힘들어』
그림 ©윤봉선



참 이상도 하지 3 강정규

까만 씨 심었는데
빨간 꽃,
노란 꽃 피고
어디선가 나비까지
불러온다



문학동네 동시집 25
『목욕탕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그림 © 손지희



문학동네 동시집 25



문학동네

자전거 _박혜선

형이 물려준 자전거
 내가 타고 다닌다
 4-2 손산
 형 이름도 함께 타고 다닌다
 형은 학원에 있는데
 밤늦게 오는데
 덜컹덜컹 쿵덕쿵덕
 형 이름은 신나게 골목길을 누빈다.



문학동네 동시집 43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그림 이이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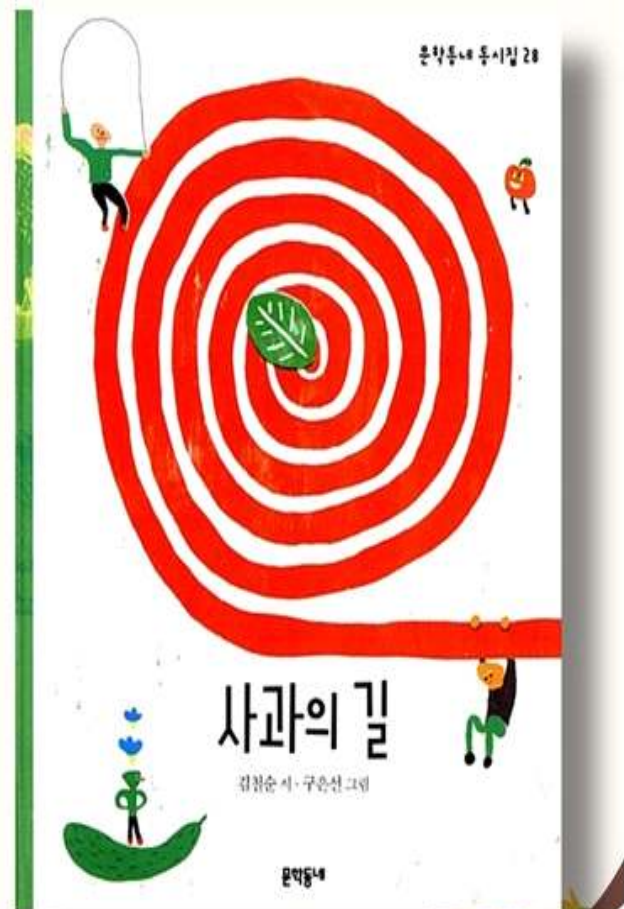


나비 _김철순

봄별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나비 날아간다
 나비 겨드랑이에 들어갔던
 봄별이
 납작 접혀서 나온다
 나비는 재미있어서 자꾸만
 봄별 접기 놀이를 한다
 나비가 접었던 봄별이
 팔랑팔랑
 땅에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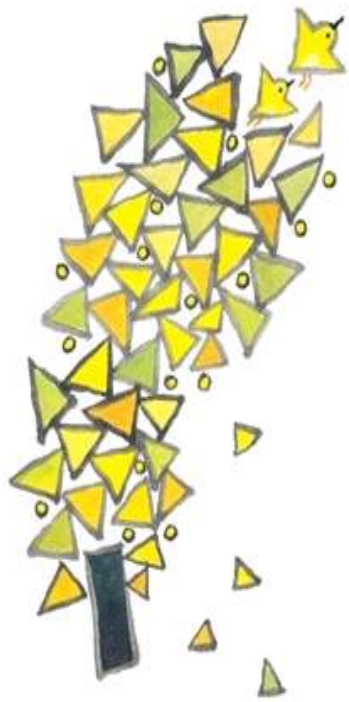


문학동네 동시집 28
 『사과의 길』
 그림 ©구운선



은행나무와 새 _전완영

황금빛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 입은
우리 집 은행나무 비단 이불 덮고 잔 새
밤사이 노랗게 물들어 노란 꿈을 털고 갑니다.



문학동네 동시집 17
『사비와 사비와 사비와』
그림 © 김세현



밤송이 _함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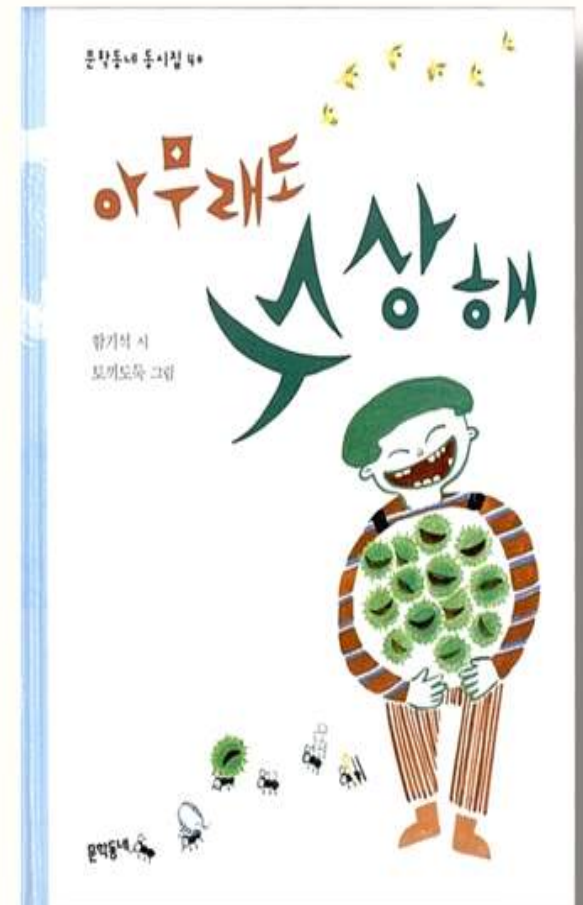
어, 밤송이가 벌어진다
밤송이가 웃는다

어, 어, 밤송이야 웃지 마
웃으면 너

이빨 다 빠진다



문학동네 동시집 40
『아무래도 수상해』
그림 ©토끼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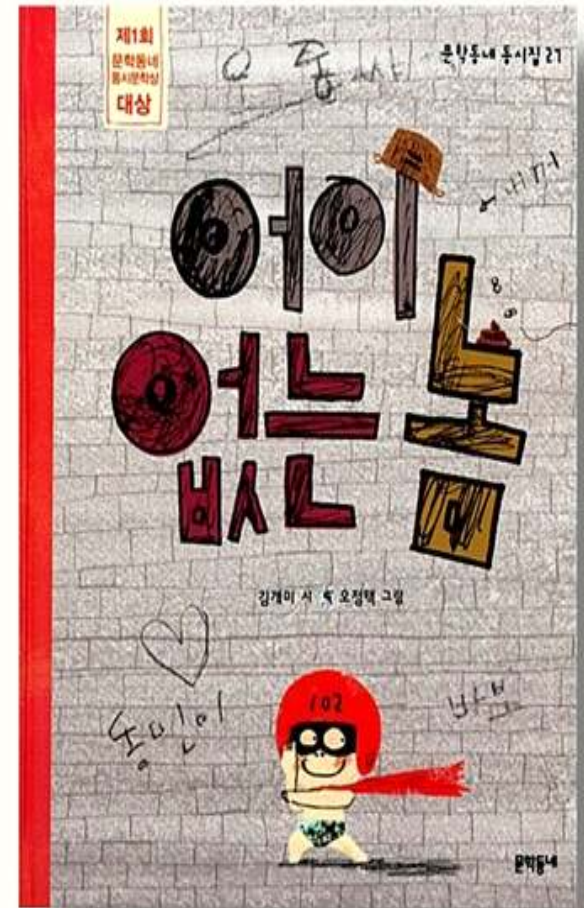


추운 날 할머니 전화 _김개미

아직 집에 있으면
따뜻하게 입고 학교 가거라
여긴,
암탉의 눈동자가
공깃돌처럼 달그락거리고
개밥그릇의 물은
시멘트처럼 딱딱해서
거꾸로 들어도 안 쏟아진단다
지겟작대기같이 키 큰 고드름이
지붕을 짊어 붙들고
차들 같은 할미 이빨은 딱딱
북을 치고 야단이란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
단단히 입고 학교 가거라



문학동네 동시집 27
『아이없는 봄』
그림 ©오정택



비행기 똥 김용택

아침부터 비행기가 똥을 싸며 지나간다.
하얀 똥이
길다.

문학동네 동시집 45
『어쩌려고 저러지』
그림 ©구자선

문학동네 동시집 45

어쩌려고 저러지

김용택 시 · 구자선 그림



문학동네



멧돼지 등허리 _이상교

양상한 나뭇가지의 겨울 산
누운 멧돼지 등허리

잎 떨어진 나무들이

긴 터럭처럼

듬성듬성, 숭숭 솟은

멧돼지 등허리

등허리 위로

멧 마리 까치

깍! 까악까악 깍깍!

폭 잠든 등허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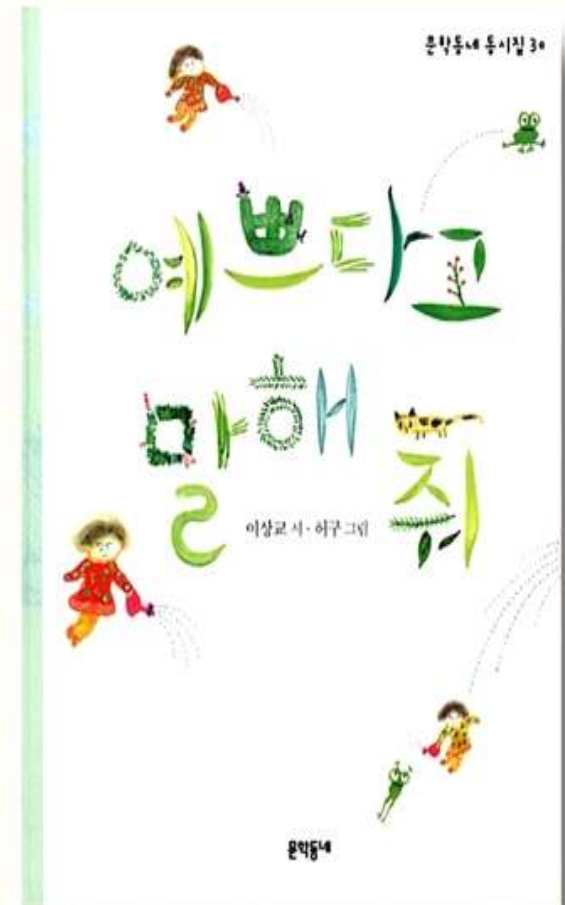
언제 깨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 언제 등허리 일으키려나



문학동네 동시집 30
『메트다고 밀해 줘』
그림 이허구



막내둥이의 투정 류선영

꿀밤 한 대
눈물 두 방울
알사탕 세 개
그리고 뽀뽀 네 번



문학동네 동시집 37
『잠자리 시집보내기』
그림 © 김효은

문학동네 동시집 37

잠자리 시집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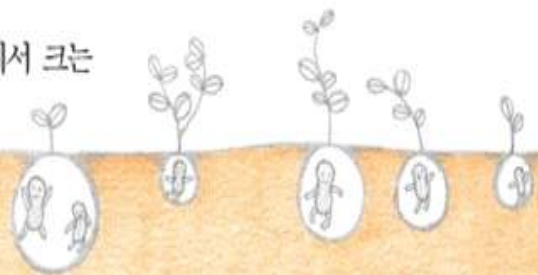
류선영 시 · 김효은 그림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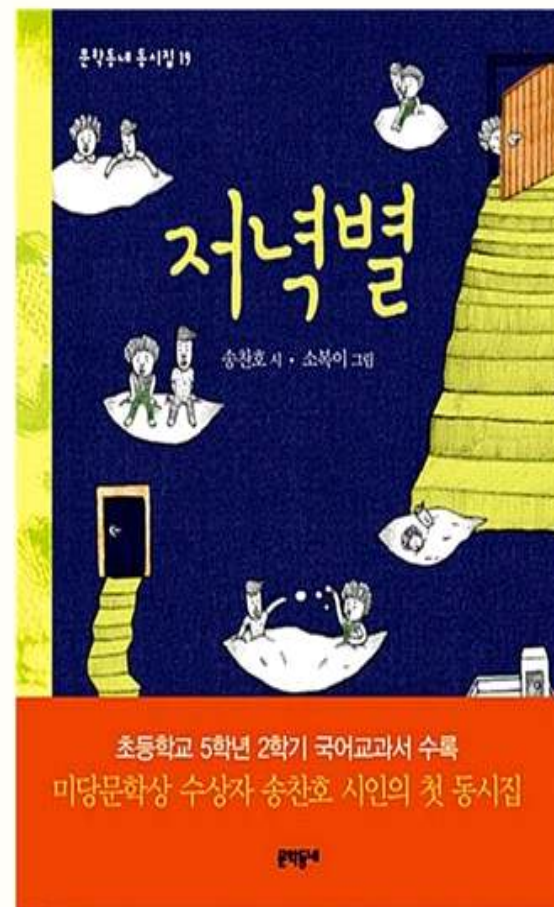
땅콩 _송찬호

땅속에서 크는
콩,
땅콩



땅콩도 이제 다 컸나 보다
땅콩밭에 가 보니
땅속
땅콩집에서
땅콩들이
땅, 콩, 땅, 콩
뛰는 소리 들린다

문학동네 동시집 19
『저녁별』
그림 ©소복이



매미 소방관 _김현욱

여름 땡볕.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

어디선가 소방관처럼 생긴

매미 한 마리

애앵— 애앵 날아와서는

매앰매앰매앰 물을 뿌린다.

느티나무 그늘이

매미 소리에 젖어

하, 시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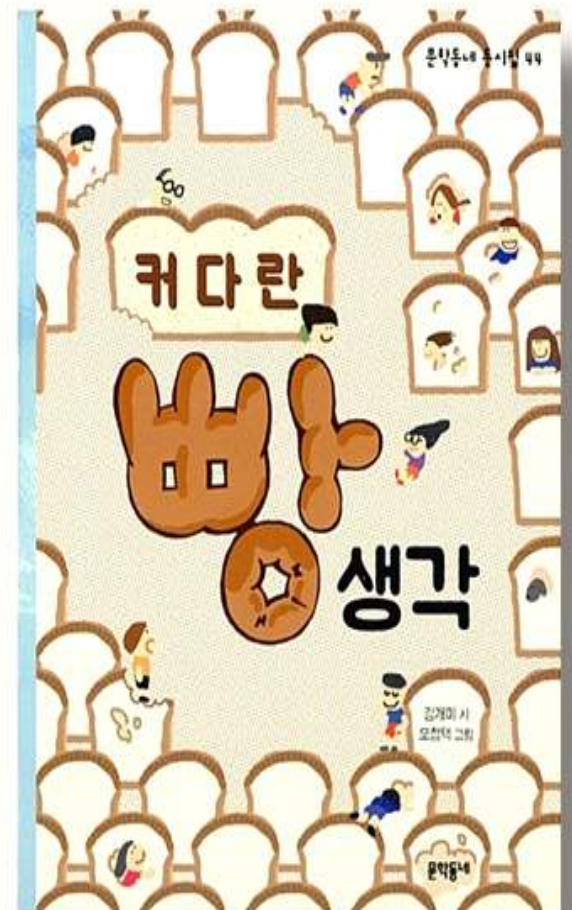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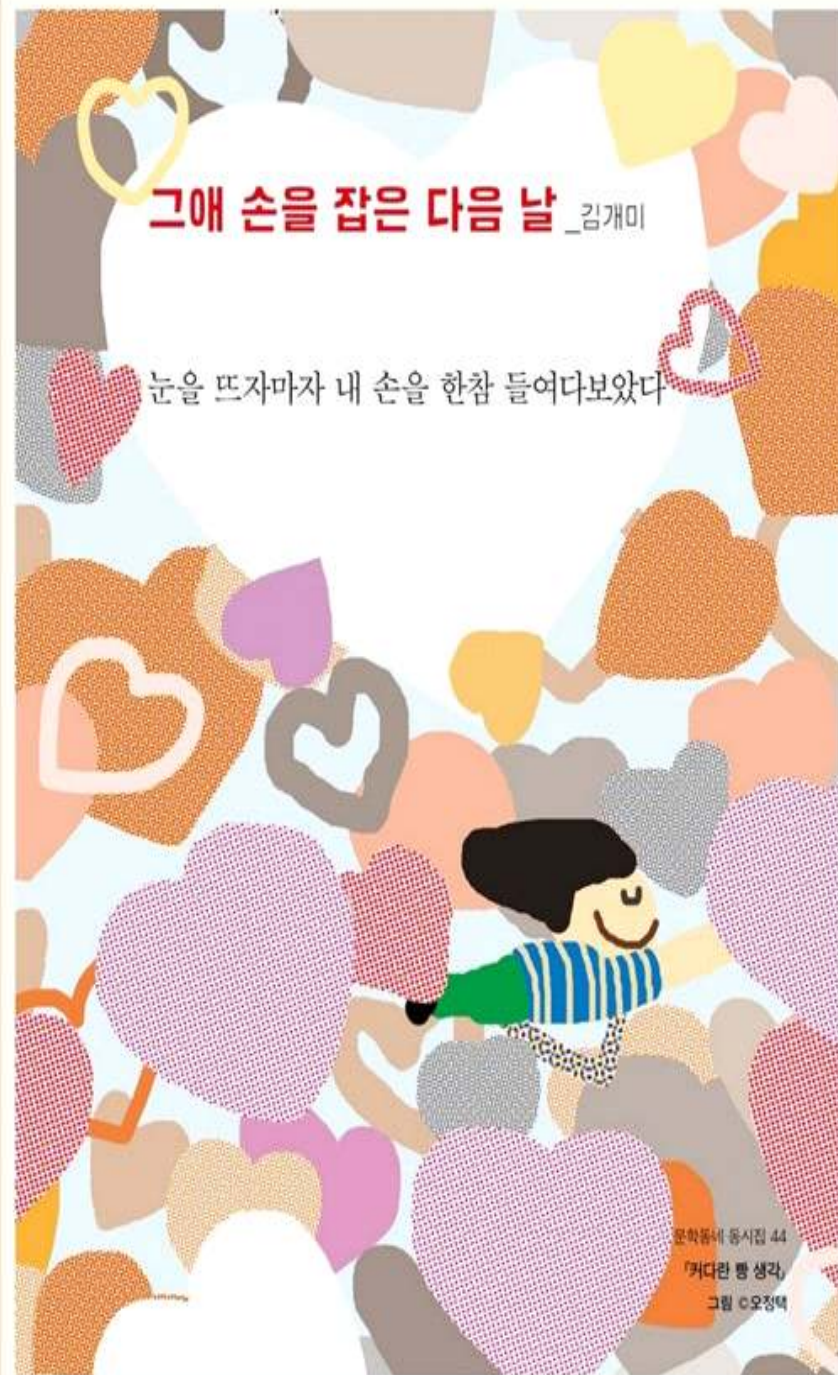




문학동네 동시집 42

『지각 중계석』

그림 ©이순표





| | | | |
|-----------------------------------------------------------------------------------|---------|----|-----------------------------------------------------------------------------------|
| 날짜 | | 날씨 |  |
| 제목 | 일기 _김용택 | 학년 | |
|  | | | |
| 오늘 집에서 놀았다 | | | |
| 아주 재미있었다 | | | |
| 만화도 보았다 | | | |
| 아주 재미있었다 | | | |
| 교회에서 산영이랑 놀았다 | | | |
| 아주 재미있었다 | | | |
| 물에서도 놀았다 | | | |
| 아주 재미있었다 | | | |
| 할머니가 오셨다 | | | |
| 과자를 먹었다 | | | |
| 아주 맛있었다 | | | |
| 복숭아도 먹었다 | | | |
| 아주 맛있었다 | | | |
| 일기를 쓰고 잤다 | | | |

문학동네 동시집 66
 「콩, 너는 죽었다」
 그림 ©김효은



그냥 놔두세요 _이준관

그냥 놔두세요.
하루 종일
말뚝구리는
말뚝을 굴리게.
하루 종일
베짱이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게.
하루 종일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게.
달팽이는
느릅나무 앞에서
하루 종일
꿈을 꾸게.



문학동네 동시집 53
『쥐눈이콩은 기죽지 않아』
그림 © 김정은

